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7. 3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6/26~6/3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금리인상 결정에 따른 추가 긴축 우려 속 환율은 상승 출발했으나 수출업체 달러 매도세, 국내 증시 외자 유입 등에 상승폭 제한.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의 ECB 포럼 연설 앞두고 위험회피 심리 강화 속 상승했으나 중국 국영은행 달러 매도 소식 후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며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5월 내구재수주, 신규주택판매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긴축 우려 확대된 가운데 위안화 약세 영향 반영하며 상승 전환
- 후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속적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등 매파적 발언 영향 속 1,310원대로 상승. 이어 주 후반, 미국 GDP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도 반기 말 네고물량 유입으로 상승폭 제한되며 1,317.7원으로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5월 PCE 둔화와 미시건대 6월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등에 따른 위험 선호 영향이 주 초반 원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으로 판단. 다만, 근원PCE의 하방경직성이 여전한 점은 원화 하향 방향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
- 여기에 국내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하며 수급상 달러 우위 공급 기조로 선회했다는 측면도 원화 강세에 소폭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통화 약세 방어 가능성 등도 원화 약세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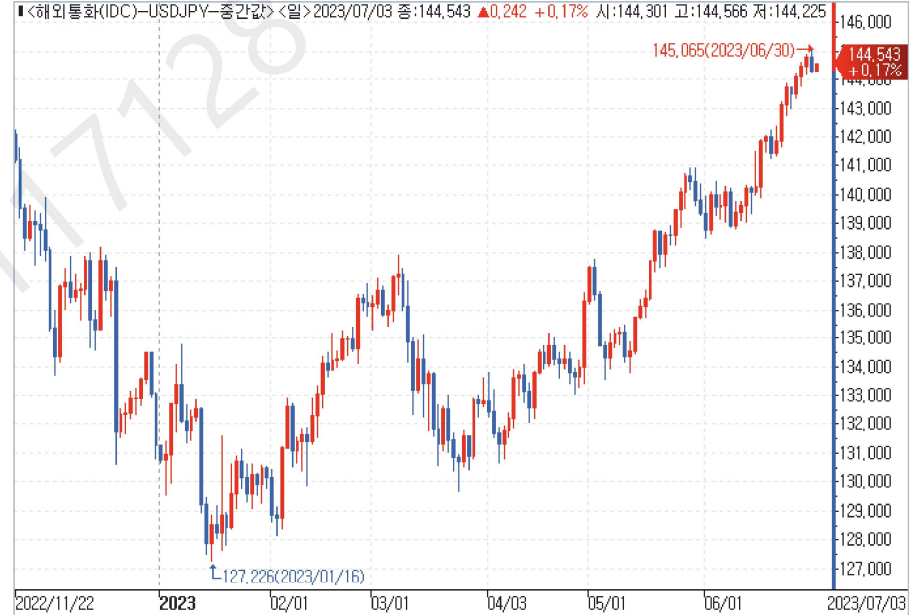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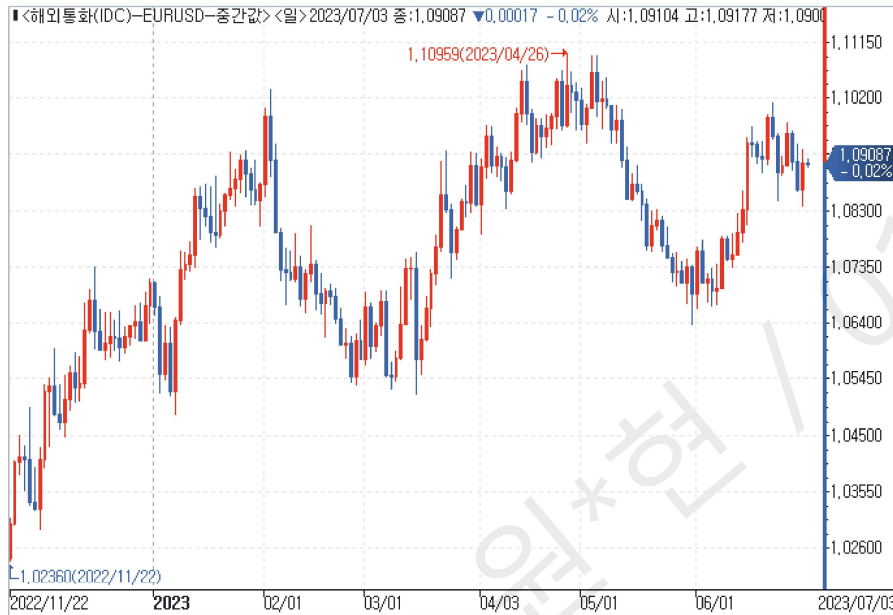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08.0	1,323.7	1,297.7	1,317.7	+9.7

예상거래범위

1,305원 ~ 1,320원



엔·유로화 동향 [6/26~6/30]



유로화 동향

- 주초, ECB 긴축 스탠스에 따른 유로화 강세 흐름 속 독일 6월 Ifo 기업환경 지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러시아 반란 이슈 등에 제한적 강세 출발. 이어 ECB 총재의 7월 추가 금리인상 시사 발언 이어지는 가운데 유로 강세 지속
- 중반 들어, 파월 연준 의장의 추가 긴축 발언과 독일 7월 소비자신뢰지수 하락에 따른 유럽 경제의 부정적 전망 영향 등에 달러 대비 유로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ECB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독일 6월 CPI 이전치 대비 상승한 가운데 미 경제성장률 호조에 따른 연준 추가 긴축 강화 우려에 약세 지속. 이어, 유로존 5월 근원CPI 상승한 측면이 ECB의 긴축적 통화정책 행보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 반영 등으로 강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94	1.0977	1.0835	1.0910	+0.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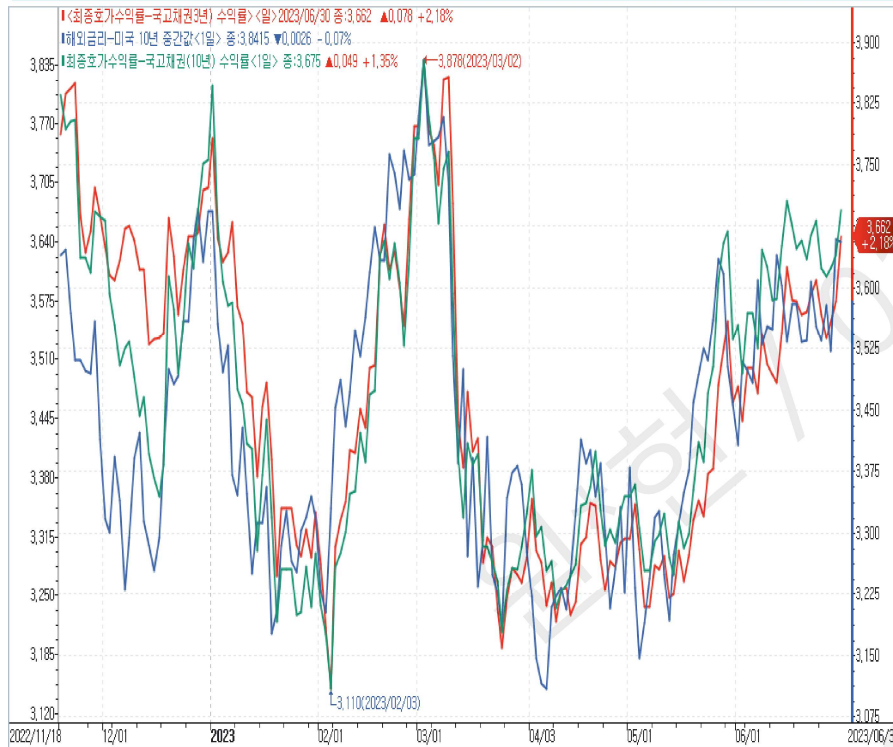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유입된 영향 반영하며 엔화 제한적 강세 출발. 이어 BOJ가 초완화적 통화정책 고수 의지 드러내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스탠스와의 차이점 부각되며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의 구두개입성 발언 이어지는 상황에도 통화정책 차별화 영향에 따른 엔화 약세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BOJ의 비둘기적 통화정책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 반영 등으로 엔화 약세 지속. 이어 주 후반, 엔화 약세 흐름 속 달러당 145엔 상회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과 미 PCE 물가 감소세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 등으로 약세 다소 제한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3.7	145.1	142.9	144.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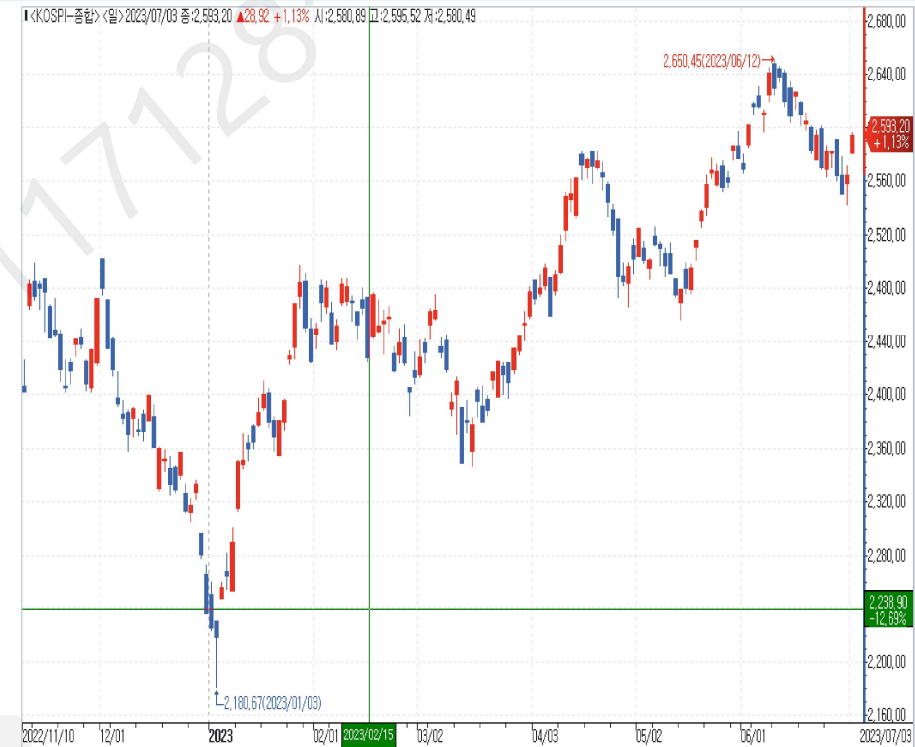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6/26~6/3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 강화 영향 속에 수급상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소화하며 하락 출발. 이어 전일 러시아 용병 관련 이슈가 일부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미 국채금리 하락 영향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도 하락 지속
- 중반 들어, 큰 이벤트는 부재했으나, 미국 경제지표(내구재 수주, 전미 주택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준 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반영되며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 경기상황을 반영한 미 국채금리 상승에 동조 흐름 나타낸 가운데, 주 후반, 미 1분기 성장률이 최종 2%로 확정됨에 따라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냈고, 여기에 국내 산업활동 동향도 개선 흐름을 보임에 따라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 반영 속에 큰 폭 상승 흐름 보이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러시아궤 쿠데타 리스크 영향 제한되는 가운데 미 2분기 반도체 실적 기대 속 기관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뉴욕증시의 대형 기술주들의 투자 의견 하향 속 파월의장의 유럽 포럼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소폭 하락
- 중반 들어, 미국 경제의 견조함 기대에 상승 흐름 후, 중국에 대한 미국 반도체 수출 제한 소식 등, 미-중 갈등 이슈 등으로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파월의장 유럽 포럼 연설에서의 기존 긴축적 스탠스 유지 언급 등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기관 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 이어 주 후반,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옴에 따른 관련 업종 중심 기관 매수 강화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